

신앙의 건망증 🐼

예전에 저는 어떤 책에서 아프리카에 산다는 '뱀잡이수리'라는 새에 대한 글을 읽었습니다.

뱀잡이수리는 독수리의 일종인 것 같은데 주로 공중을 높이 날아다니다가 두더지나 뱀 같은 것을 발견하면 쏜살같이 내려가 낚아챈다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뱀잡이수리가 민첩하게 잘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땅에 내려와 먹이를 먹고 있는데 맹수의 습격을 받게 되면, 날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해 뛰한다고 합니다.

너무도 당황한 나머지 자기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날짐승이 뛰어봐야 얼마나 빨리 뛰겠습니까?

결국 얼마 못 가서 맹수에게 잡아먹히고 맙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셨는데,

우리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는 때가 많습니다.

믿음을 적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뱀잡이수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무척 믿음 있는 사람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믿음을 적용해야 할 상황에 맞닥뜨리면 휘청거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핀잔을 들을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증발한 것입니다.

신앙의 건망증이 도진 것입니다.

신앙의 생활화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신앙인이면서도

사고하는 방식이나 행동은 세상의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지금 내 행동은 누구에게, 무슨 영향을 받은 건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 삶을 변혁시키는 책 읽기 / 한기채 (2002/04/11)

🐼.....여러분의 가장 깊은 한숨을 아시는 그분을 만나십시오. 「더 깊은 묵상」 제공